유식·중관 치우친 견해를 짓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주소 가운데 유일하게 실차난타가 번역한 신역을 의지해서 기신론을 해석한 사람은 명대(明代)의 우익지욱(藕益智旭, 1599~1655)이다.

그는 운서주굉(雲棲 宏, 1535~1615), 자백진가(紫栢眞可, 1542~1603), 감산덕청(憨山德淸, 1546~1623)과 명대의 4대 고승으로 불린 후대의 인물이다.

지욱은 출가하기 전에는 한때 유학에 심취하여 벽불론(闢佛論) 등 불교를 비방하는 글을 쓴 적도 있으나 17세 때 유·불·도 삼교가 근원이 같다는 삼교동원론(三敎同源論)을 주장한 운서주굉의 〈자지록서(自知錄序)〉와 〈죽창수필(竹窓隨筆)〉을 읽고 불교에 귀의하면서 먼저 쓴 배불론적인 서적들을 모두 소각하였다 한다. 부모를 위하여 〈약사경〉과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출가의 원을 일으켜 24세 때 감산덕청의 제자인 설령(雪嶺)을 은사로 출가했다. 그는 〈능엄경〉, 〈유식론〉 등을 공부하고 상(相)과 성(性)에 대해 깊이 연구하여 '성상융회론(性相融會論)'을 주장하였다. 그의 열망소(裂網疏)가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쓰여진 주소(注疏)이다.

열망소의 특징은 유가파의 입장에서 내세우는 유식설이나 중관파에서 내세우는 공관의 이치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견해를 타파하는 입장에서 쓴 주소라는 점이다. 열망(裂網)이란 말이 '그물을 찢어버린다'는 뜻인데 유식의 입상(立相)에만 치우친 견해와 중관(中觀)의 파상(破相)에만 치우친 두 견해는 모두 모두 어리석은 미혹이므로, 이 어리석은 두 견해를 찢어버린다는 뜻에서 열망소라 이름을 붙인 것이다.

지욱은 이 소에서 기신론은 유식과 중관이 모두 동일한 것임을 나타내는 논서라고 그 성격을 밝히고 기신론의 대의가 유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자 했던 것이다.

지욱은 원래 천태종 스님이었다. 그는 열망소에서 천태, 화엄, 유식, 중관 등의 대승사상을 종합적으로 인용·회통하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천태종의 입장에서 다른 교의들을 융섭하려고 한 경향이 농후하다고 후대에 와서 그의 소를 평가하고 있다.

원효소에서도 기신론의 내용을 두고, 유(有)에 치우지지도 않고 공(空)에 치우치지도 않은 논이라고 말하고 있다. 열망소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근대 신불교운동을 주도한 '중국불교 부흥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양문회(楊文會, 1887~1911)에 의해서이다. 그는 각종 기신론 주소들을 교감 · 정리하여 불교연구의 근본으로 삼고자 했다.

실치난타 신역 의지한 열망소
유식·중관 모두 동일함을 밝혀

그때 간행된 것이 진계(眞界)의 〈기신론찬주〉 2권, 덕청의 〈기신론직해〉 2권, 그리고 지욱의 〈기신론열망소〉이다. 양문회는 만년에는 기신론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신론소해회집〉을 간행하였다. 그 안에는 기신론의 두 한역본, 〈석마하연론〉, 법장의 〈기신론의기〉와 〈별기〉, 원효의 〈기신론해동소〉, 진계의 〈기신론찬기〉, 덕청의 〈기신론직해〉, 그리고 지욱의 〈기신론열망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지욱은 경·율·논 삼장에 걸쳐 많은 저술을 남겼다. 현존하는 그의 저술은 모두 50부 191권이나 된다. 천태교학을 비롯하여 논리학, 의례, 개론서, 유교, 논설, 시 수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그의 저술이 남아 있다. 그는 열망소 권1의 서문에서 규봉종밀의 교판(敎判)을 비판하고, 성상불이론(性相不二論)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마명의 기신론을 용수나 세친의 사상보다도 높은 것이라 하여 기신론이 성종과 상종의 근본사상을 겸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용수의 반야사상을 지혜를 따르는 수지설(隨智說)이라 하였고, 세친의 유식사상을 뜻을 따르는 수정설(隨情說)이라 하여 기신론의 심진여문이 수지설이며, 심생멸문이 수정설이라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논리에서 그는 기신론을 성상종지(性相摠持)이며 원극일승(圓極一乘)의 논서라고 극찬하였다. 그는 또 기신론 이역(二譯) 가운데 실차난타의 신역이 뛰어나다는 주장도 하였다. 서문에서 양나라 진제역과 당나라 실차난타역의 두 본을 비교하면 실차난타역이 뛰어나지만 옛날부터 두 본이 유통되어 왔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중생 위해선 보살은 열반도 버린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㊹ 일체를 희사하는 것은

捨一切品第十(사일체품제십)

菩薩大有財物無有乞者。喚之不來菩薩思惟。故當斷諸結使無有來者。菩薩悲心。一切眾生眾苦圍繞。發願度諸眾生。菩薩諸有所索一切皆捨無物不與。欲求佛智最上救濟一切眾生。尊有勝悲心欲行救濟何物不捨。有悲心者為他故涅槃尙捨。況復捨身。捨身命財有何難也。捨財物者不如捨身。捨身者不如捨於涅槃。涅槃尙捨。有何不捨。悲心徹髓得自在悲。作救濟者大菩薩施都無難也。是一切眾生最親與他作向樂因。悲者一切都捨離諸疲勞。一切眾生ßk濟。怨親平等身命尙與。何物不捨。(보살대유재물무유걸자. 환지불래보살사유. 고당단제결사무유래자. 보살비심. 일체중생중고위요. 발원도제중생. 보살제유소색일체개사무물불여. 욕구불지최상구제일체중생. 존유승비심욕행구제하물불사. 유비심자위타고열반상사. 황부사신. 사신명재유하난야. 사재물자불여사신. 사신자불여사어열반. 열반상사. 유하불사. 비심철수득자재비. 작구제자대보살시도무난야. 시일체중생최친여타작향락인. 비자일체도사리제피로. 일체중생진제. 원친평등신명상여. 하물불사.)

번역

일체를 희사하는 것에 대한 품 제 10

보살이 큰 재물이 있고 구걸하는 이가 없어 불러도 오지 않으면 보살이 생각하기를 "응당 모든 얽매인 것을 끊어버리고자 하나 찾아오는 이가 없구나"합니다. 보살은 자비심으로 일체중생을 둘러 에우며 중생 제도하기를 발원합니다. 보살은 무엇이든 찾는 바가 있으면 일체를 다 희사하여주지 못할 것이 없으며, 바라고 구하면 부처님 지혜인 최상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합니다. 존귀하고 수승한 자비심으로 구제를 행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주지 못하겠습니까. 자비심 있는 이는 남을 위하기 때문에 열반도 오히려 버리거니와 오히려 다시 몸을 버리고, 몸과 목숨과 재물인들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재물을 희사하는 것이 몸을 희사하는 것만 못하고, 몸을 희사하는 것이 열반을 버리는 것만 못하나니, 열반도 오히려 버리거니와 버리지 못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비심의 투철한 골수로 자재한 자비심을 얻거니와 구제하는 이는 대보살로 모두를 보시함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것은 일체중생을 가장 친근히 하는 것이요, 더불어 남을 항상 즐겁게 만드는 까닭이 됩니다. 자비로운 이는 일체를 모두 희사하되 모든 피로함을 떠나며, 일체중생을 참으로 구제하되, 원수나 친한 이나 평등하여 몸과 목숨도 항상 주거니와 하물며 어떤 물건이든 희사하지 않겠습니까.

해설

보살이 열반을 버리는 경우는 과연 언제든가.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 할 때 열반을 버린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과 같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자신의 몸의 일부도 떼어준다. 때로는 몸과 목숨마저 희생하기에 이른다.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기에 자신의 행복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다. 이 세상에서 보살을 찾는 일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내 부모님을 보면 그 분들이 보살이기 때문이다.

세상의 부모들은 자식과 부모라는 좁은 세계의 보살이지만, 그 보살심을 온 세상으로 확장하고 넓힌다면, 그가 바로 불보살일 것이다. 하물며 재물 때문에 남에게 해코지를 하겠는가. 진정한 수행자는 자신의 열반 따위는 이미 버린 지 오래여야 하리라.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오늘의 부처님 되어

사람의 백팔번뇌는 소유욕으로부터 비롯된다. 사람이 앓는 모든 병은 집착으로부터 시작된다. 소유욕과 집착은 본능적인 욕구이면서 생리적 성취욕만큼 뿌리가 깊다. 모으고 이루고 갖고자 하는 욕구는 삶의 활력소일 수 있다.

끌어당김으로 쌓아둔 물질적 풍요는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이라 더욱 소중할 터이다. 그러긴하나 물질적 풍요는 정신적 빈곤을 불러들인다. 넘치면 탈이 나고 지나치면 화(禍)를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소유욕과 집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가끔씩 방안의 책상정리를 시도해보자. 당장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치우거나 나누어 주거나 버리는 일을 행동으로 옮겨가 보자. 처음엔 머뭇거리게 되고 망설이게 되겠지만 마음을 청소하듯 책상의 크고 작은 물건을 치우며 개운함을 느낄 터이다.

다음으로 옷장과 신발장을 정리해보자. 두 개이면 하나는 나누어주자.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를 실천해보자. 신기하게도 비운만큼 개운하고 나눈 만큼 기쁠 터이다.

유행가 노래 가락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본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떠나는 허무의 존재이다. 누구는 말할 것이다. 빈 주머니가 되면 기(氣)도 죽고, 힘도 없고 살맛나지 않는다고. 현찰은 현대의 엄연한 신(神)과 같은 존재라고. 오고가는 현찰이 있어야 우정도 애정도 의리도 오래가는 현실이라고.

그러나 배고프고 목마르지 않을 정도의 생활이면 넉넉한 것이다. 나눔을 실천하고 적은 것으로도 만족을 알면 성경구절처럼 빵과 생선은 수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채우고도 남는 법이다.

남방불교의 수행법처럼 마음 챙김과 그침과 관찰의 알아차림이 생활화 되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더러는 흔들리고 때로는 헐떡이는 존재이다. 다만 그럴 때마다 챙김과 그침, 알아차림으로 습관의 고리를 끊도록 노력해야 한다.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한 것이다. 적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며 만족하는 마음이 행복과 자유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이유도 행복을 위해 자유를 위해서이다.

부처님의 경전에서 만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한 말뚝에 두 번 넘어진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 사람을 잘못 사귄 뒤의 후유증"이란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부끄러운 일이 줄어들수록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다. 정직과 진솔함으로 나눔과 비움을 실천하는데서 자비와 사랑은 평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다. 보시(布施)는 남을 위해 나누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나눔으로 개운해지는 나를 위한 행위이다.

비닐 봉지에 물고기 몇 마리 넣어두었다가 강물에 풀어주는 것이 방생(放生)의 바른 실천은 아닐 터이다. 매듭을 풀어주고 막힌 곳을 뚫어주며 목마른 자에게 물이 되고 배고픈 자에게 밥이 되는 행위가 방생의 바른 실천일 것이다. 어떤 수행승이 노후대비라며 비상금을 모으고 쌓아둔다면 그는 속물근성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얼간이 중생이다.

수행승에겐 노후가 없다. 오로지 오늘의 지금이 있을 뿐이다. 또한 노후대비는 비상금이 아닌 수행력이 근본이 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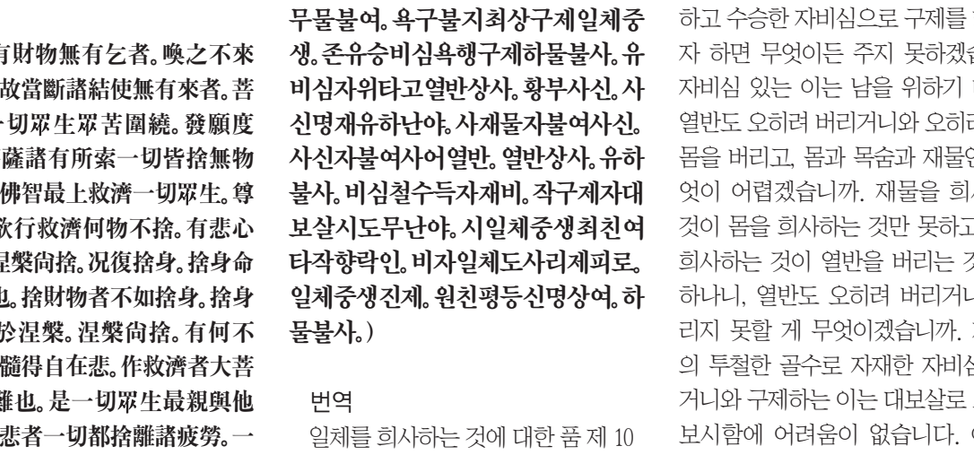
소유욕을 앞세워 살아가지 말길
윤회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라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란 말이 있다. 선가(禪家)에서 즐겨 쓰는 말이나 본래 내 것은 없는 것이다. 재물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 그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바보는 돈을 밝히고 명예를 따르다 건강을 잃는 사람일터. 건강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들숨과 날숨이 항시 헐떡임 쪽에 기울고 있다면 그는 머저리 등신일 뿐이다.

거기다가 조직 관리하고 세력 확장으로 밤잠까지 설치며 허세부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업덩이 중생으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 뼈저린 후회로 피눈물을 흘릴 자이다. 나누면 개운하다. 비우면 편안하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드러내고 감출 것 없이 오늘의 주인공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넉넉하게 살 일이다.

불교는 오늘의 종교이다. 사람이 부처이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소유욕을 앞세우며 집착하지 말일이다. 생각의 윤회에서 벗어나 오늘의 부처님 되어 자유인으로 살 일이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